

보청기와 인공와우 기기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및 태도 : 보청기 효과와 인공와우 효과

허민정*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박사과정

김리석

동아대학교 이비인후과 교수

안성우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부성현**

성균관대학교 마산삼성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요약》

본 연구는 보청기와 인공와우 기기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및 태도를 알아보고, 보청기와 인공와우 기기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변인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14명의 대학생에게 보청기와 인공와우 기기를 착용한 조건과 착용하지 않은 조건에 대해 형용사형 척도를 작성하게 하였고, 보청기와 인공와우 기기에 대한 태도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보청기와 인공와우 기기 모두 착용하지 않은 조건보다 착용한 조건에 대해 외모, 성격, 성취에서 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성별로 비교한 결과 여성 보다는 남성에게 대한 평가가 더 부정적이었다. 또한, 보청기보다 인공와우 기기에 대해 사회적 낙인, 개인적 견해, 지식에서 더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났다. 관련된 변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과 안경 혹은 콘택트렌즈 착용 유무가 인공와우 기기 착용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대학생에서도 보청기나 인공와우 기기에 대한 '보청기 효과'와 '인공와우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보청기보다 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인공와우 기기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보청기, 인공와우, 보청기 효과

1. 서론

사회의 노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난청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보청기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의 약 30%가 난청

* 제 1 저자

** 교신저자(drboo@hanmail.net)

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약 37%가 난청 환자로 추정된다 (Benson & Marano, 1998; Kim et al, 2000). 그러나, 실제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환자의 수는 이보다 훨씬 적다. 그 이유로는 주로 보청기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 부정적인 자기 인식, 경제적 비용, 착용의 불편함 등을 들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은 그 중에서도 보청기 착용에 대한 사회적 편견, 낙인과 같은 심리사회적 이유를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제시하였다(Blood, 1997; Kasten, 1992). Blood 등(1977)은 이를 ‘보청기 효과’라고 하였으며, 후속 연구들은 여러 대상군에서 실제 보청기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Danhauer et al., 1980; Dengerink & Porter, 1984; Johnson & Danhauder, 1982; Johnson, Danhauer, & Edwards, 1982; Mulac, Danhauer, & Johnson, 1983).

태도는 자신의 신념 체계를 바탕으로 사물이나 상태에 대해 가지는 관점(views)을 말한다(Cienkowski & Pimentel, 2001). 장애에 대해 일반인들이 가지는 태도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부정적 태도를 제시하였다(김동연, 1984; 이종남, 1994).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Allen & Bellstedt, 1996; Marini, 1994). 장애의 치료와 재활에 투자되는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이는 큰 사회적 손실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중 매체나 장애 관련 기관의 교육과 홍보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등에 대한 정보가 확대되면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되고 있다(Allen & Bellstedt, 1996; Brockington et al., 1993; Marini, 1994). 이는 대중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제공이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Lee & Rodda, 1994).

그러나, 청각장애와 보청기 착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어떠한가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는 거의 없다. 특히, 최근 고도 이상의 난청 환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공와우 기기에 대한 연구는 외국과 국내에서 아직 보고된 바 없다. 국내에서 인공와우 이식술이 시행된지 약 20년이 지났으며, 수술이 시행된 초기에 인공와우이식을 받은 아동들이 학령기를 지나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서 활동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인공와우이식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회적 통합임을 감안할 때, 인공와우 기기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및 태도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청기와 인공와우 기기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보청기 효과와 인공와우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고, 보청기와 인공와우 기기에 대한 태도에 관련된 변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공와우이식 수술 전과 후의 상담, 보청기 상담, 그리고 청각장애에 대한 교육 및 서비스 제공시 기초 정보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청기 착용 유무에 따른 대학생들의 인식 및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보청기 착용자의 성별에 따른 평가에 차이가 있는가?

- 둘째, 인공와우 기기 착용 유무에 따른 대학생들의 인식 및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인공와우 기기 착용자의 성별에 따른 평가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보청기와 인공와우 기기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넷째, 보청기와 인공와우 기기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에 관련된 변인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B시에 소재한 K대학과 P대학에서 교양과목을 수강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 대학생 114명이다. 성별은 남학생 65명, 여학생 49명이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 24명, 2학년 46명, 3학년 20명, 4학년 24명이다. 청각장애에 대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13명이고, 특수교육 관련 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3명이다. 본인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학생은 57명이다. 연구 대상자의 배경정보를 살펴보면 <표 II-1>과 같다.

<표 II-1> 연구 대상자의 배경정보

		빈도	백분율 (%)
학년	1학년	24	21
	2학년	46	40.4
	3학년	20	17.5
	4학년	24	21
성별	남자	65	57
	여자	49	43
청각장애에 대한 경험		13	11
안경 혹은 콘택트렌즈 착용		57	50
특수교육 관련 과목 수강		3	2.6

2. 연구도구

1) 사진

30대 중반의 여성 1명과 남성 1명이 귀걸이형 보청기를 착용한 모습, 귀걸이형 인공와우 기기를 착용한 모습,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은 모습을 90도 각도로 촬영하였다. 보청기와 인공와우 기기가 잘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자는 머리를 묶은 모습으로,

남자는 짧은 머리로 촬영하였다. 인공와우 기기는 최근 성인 환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귀걸이형으로 하였고, 보청기 또한 귀걸이형으로 하였다. 사진은 동일 카메라로 동일한 배경에서 촬영하였다.

2) 척도

동일 인물이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과 착용하지 않은 모습에 대한 대학생들의 평가를 비교하고, 동일 인물이 인공와우 기기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과 착용하고 있지 않은 모습에 대한 대학생들의 평가를 비교하기 위하여 Blood 등(1978)이 사용한 척도를 번안 및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문항 수는 12개이고, 외모, 성격, 성취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은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사진 속 인물의 외모, 성격, 성취를 묘사하는 형용사 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해 5점으로 평가하며, 1점이 가장 부정적인 평가이고, 5점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형용사형 5점 척도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3) 보청기와 인공와우 기기에 대한 태도 설문지

보청기와 인공와우 기기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Cienkowski와 Pimentel(2001)이 사용한 설문지(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Loss of Hearing Questionnaire : C-ALHQ)를 번안 및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12개의 문항이고, 3개의 하위 영역인 사회적 낙인, 보청기나 인공와우 기기에 대한 지식, 보청기나 인공와우 기기 착용자에 대한 견해를 평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 영역은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응답자는 예/아니오로 답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태도 설문지는 <부록 2>에 제시하였다.

3. 검사 방법

강의실에서 척도와 설문지를 슬라이드로 제시한 후 응답 방식에 대한 예를 제시하고, 검사 실시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응답자들은 슬라이드로 사진이 제시됨과 동시에 척도와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피로 효과(fatigue effect)를 줄이고자 반응 시간은 각 사진당 5분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응답자들이 앞서 작성한 척도나 설문지로 돌아가서 다시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사진 제시는 총 5조건으로 하였으며, 조건 1-4는 형용사형 척도로 평가하였고, 조건 5는 태도 설문지로 평가하였다. 사진의 제시 순서는 다음과 같다. 조건 1: 여성이 보청기를 착용한 모습과 착용하지 않은 모습, 조건 2: 남성이 보청기를 착용한 모습과 착용하지 않은 모습, 조건 3 : 여성이 인공와우 기기를 착용한 모습과 착용하지 않은 모습, 조건 4 : 남성이 인공와우 기기를 착용한 모습과 착용하지 않은 모습, 조건 5: 보청기를

착용한 모습과 인공와우 기기를 착용한 모습.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진은 <그림 II-1>과 같다.

조건1 : 여성-보청기 착용유무



조건2 : 남성-보청기 착용유무



조건3 : 여성-인공와우 기기 착용유무



조건4 : 남성-인공와우 기기 착용유무



조건5: 보청기와 인공와우 기기 비교



<그림 II-1> 보청기와 인공와우 기기 착용자의 사진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는 SPSS 12.0 version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보청기 착용 유무에 대한 대학생들의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인공와우 기기 착용 유무에 대한 대학생들의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형용사형 척도의 총점과 3개의 하위영역에 대하여 paired t-test를 시행하였다.

보청기와 인공와우 기기 착용 유무에 대한 대학생들의 평가가 착용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형용사형 척도의 총점과 3개의 하위영역에 대하여 paired t-test를 시행하였다.

보청기와 인공와우 기기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태도 설문지의 총점과 3개의 하위영역에 대하여 paired t-test를 시행하였다.

인공와우 기기와 보청기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에 관련된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 분석을 시행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보청기 착용 유무에 대한 평가 비교 결과

동일 인물이 보청기를 착용한 모습과 착용하지 않은 모습에 대한 대학생들의 평가를 문항별로 제시한 결과는 <표 III-1>과 같다.

<표 III-1 > 보청기 착용 유무에 대한 평가의 문항별 결과

영역	문항	보청기 미착용 여성	보청기 착용 여성	보청기 미착용 남성	보청기 착용 남성
외모	인상이 나쁜 : 인상이 좋은	3.40±0.81	2.96±0.75	2.46±0.73	2.28±0.74
	지저분한 : 단정한	3.66±0.99	2.96±0.81	2.47±0.79	2.32±0.78
	호감이 안가는 : 호감이가는	3.09±0.86	2.47±0.85	2.21±0.75	2.05±0.81
	못생긴 : 예쁜	2.96±0.85	2.66±0.76	2.26±0.85	2.04±0.79
성격	비진취적인 : 진취적인	2.91±0.83	2.49±0.77	2.46±0.73	2.27±0.72
	내성적 : 외향적	2.70±0.94	2.30±0.86	2.88±0.92	2.39±0.84
	불친절한 : 친절한	3.41±0.93	2.99±0.90	2.81±0.85	2.78±0.87
	수동적인 : 적극적인	2.72±0.93	2.05±0.86	3.04±0.93	2.29±0.88

영역	문항	보청기 미착용 여성	보청기 착용 여성	보청기 미착용 남성	보청기 착용 남성
성취	무식한 : 지적인	3.30±0.77	2.91±0.65	2.63±0.79	2.47±0.73
	실패한 : 성공적인	3.05±0.61	2.76±0.68	2.65±0.74	2.49±0.77
	우둔한 : 영리한	3.41±0.93	2.66±0.82	2.63±0.79	2.50±0.73
	무능력한 : 능력있는	2.72±0.93	2.73±0.60	2.68±0.78	2.40±0.76

<표 I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청기를 착용한 모습이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낮은 점수를 받은 문항을 살펴보았을 때, 보청기를 착용한 여성의 경우 외모에서 호감이 안가며, 성격이 내성적이고, 수동적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보청기를 착용한 남성의 경우 외모에서 호감이 안가고, 못생겼으며, 성격이 비진취적이고 수동적이며, 성취에서 무능력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보청기를 착용한 모습과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에 대한 대학생들의 평가가 외모, 성격, 성취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시행한 결과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2 > 보청기 착용 유무에 대한 평가의 영역별 평균 비교 결과

성별	영역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여성	외모	미착용	114	3.28	0.72	6.65***
		착용	114	2.76	0.64	
	성격	미착용	114	2.93	0.65	5.41***
		착용	114	2.46	0.58	
	성취	미착용	114	3.13	0.57	4.93***
		착용	114	2.77	0.52	
	전체	미착용	114	3.11	0.53	6.52***
		착용	114	2.66	0.48	
남성	외모	미착용	114	2.33	0.65	3.03**
		착용	114	2.16	0.66	
	성격	미착용	114	2.77	0.6	5.94***
		착용	114	2.41	0.62	
	성취	미착용	114	2.62	0.68	2.97**
		착용	114	2.44	0.66	
	전체	미착용	114	2.57	0.56	4.67***
		착용	114	2.33	0.57	

p<.01, *p<.001

<표 I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과 남성 모두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보다 착용한 모습에 대해 외모, 성격, 성취에서 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영역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여성의 경우 성격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고, 남성의 경우 외모, 성격, 성취 모두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t 검증 결과 보청기 착용 유무에 따른 차이는 외모(여성: $t = 6.65, p < .001$; 남성: $t = 3.03, p < .001$), 성격(여성: $t = 5.41, p < .001$; 남성: $t = 5.94, p < .001$), 성취(여성: $t = 4.93, p < .001$; 남성: $t = 2.97, p < .01$)의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청기를 착용한 여성과 보청기를 착용한 남성에 대한 대학생들의 평가가 외모, 성격, 성취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시행한 결과는 <표 III-3>과 같다.

<표 III-3 > 보청기를 착용한 여성과 남성에 대한 평가 비교 결과

영역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외모	여성	114	2.76	0.64	8.31***
	남성	114	2.16	0.66	
성격	여성	114	2.46	0.58	0.68
	남성	114	2.41	0.62	
성취	여성	114	2.77	0.52	5.31***
	남성	114	2.44	0.66	
총점	여성	114	2.66	0.48	5.96***
	남성	114	2.34	0.57	

*** $p < .001$

<표 II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보다 남성에 대해 외모, 성격, 성취에서 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t 검증 결과 여성과 남성에 대한 평가의 차이는 외모($t = 8.31, p < .001$), 성취($t = 5.31, 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인공와우 기기 착용 유무에 대한 평가 비교 결과

동일 인물이 인공와우 기기를 착용한 모습과 착용하지 않은 모습에 대한 대학생들의 평가를 문항별로 제시한 결과는 <III-4>와 같다.

<표 III-4 > 인공와우 기기 착용 유무에 대한 평가의 문항별 결과

영역	문항	인공와우 미착용 여성	인공와우 착용 여성	인공와우 미착용 남성	인공와우 착용 남성
외모	인상이 나쁜 : 인상이 좋은	3.45±0.76	2.64±0.79	2.65±0.78	2.17±0.83
	지저분한 : 단정한	3.67±0.76	2.71±0.89	2.72±0.75	2.17±0.83
	호감이 안가는 : 호감이가는	3.16±0.85	2.48±0.83	2.39±0.81	2.04±0.93
	못생긴 : 예쁜	3.07±0.84	2.69±0.78	2.46±0.87	2.08±0.89
성격	비진취적인 : 진취적인	2.96±0.66	2.47±0.76	2.73±0.83	2.23±0.84
	내성적 : 외향적	2.80±0.86	2.30±0.86	2.98±0.75	2.21±0.78
	불친절한 : 친절한	3.43±0.86	3.03±0.94	2.84±0.74	2.69±0.84
	수동적인 : 적극적인	2.89±0.87	2.14±0.83	2.97±0.79	2.01±0.84
성취	무식한 : 지적인	3.30±0.68	2.82±0.73	2.84±0.70	2.38±0.76
	실패한 : 성공적인	3.08±0.65	2.69±0.72	2.80±0.61	2.41±0.82
	우둔한 : 영리한	3.32±0.66	2.63±0.83	2.78±0.68	2.29±0.80
	무능력한 : 능력있는	3.13±0.64	2.68±0.73	2.66±0.70	2.37±0.82

<표 II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공와우 기기를 착용한 모습이 인공와우 기기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낮은 점수를 받은 문항을 살펴보았을 때, 인공와우 기기를 착용한 여성의 경우 외모에서 호감이 안가고, 성격이 내성적이고, 수동적, 비진취적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인공와우 기기를 착용한 남성의 경우 외모에서 인상이 나쁘고, 지저분하고, 호감이 안가고, 못생겼으며, 성격이 비진취적, 내성적, 수동적이며, 성취에서 무식하고, 성공적이지 못하고, 우둔하고, 무능력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인공와우 기기를 착용한 모습과 착용하지 않은 모습에 대한 대학생들의 평가가 외모, 성격, 성취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알아보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시행한 결과는 <표 III-5>와 같다.

<표 I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과 남성 모두 인공와우 기기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보다 착용한 모습에 대해 외모, 성격, 성취에서 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영역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여성의 경우 성격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고, 남성의 경우 외모, 성격, 성취 모두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t 검증 결과 인공와우 기기 착용 유무에 따른 차이는 외모(여성: $t = 8.44$, $p < .001$; 남성: $t = 7.18$, $p < .001$), 성격(여성: $t = 6.78$, $p < .001$; 남성: $t = 9.55$, $p < .001$), 성취(여성: $t = 7.16$, $p < .001$; 남성: $t = 6.01$, $p < .001$)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 > 인공와우 기기 착용 유무에 대한 평가의 영역별 평균 비교 결과

성별	영역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여성	외모	미착용	114	3.28	0.81	8.44***
		착용	114	2.59	0.78	
	성격	미착용	114	2.97	0.73	6.78***
		착용	114	2.44	0.72	
	성취	미착용	114	3.15	0.66	7.16***
		착용	114	2.65	0.73	
총점	미착용	114	3.13	0.65	8.59***	
	착용	114	2.56	0.67		
남성	외모	미착용	114	2.51	0.77	7.18***
		착용	114	2.08	0.83	
	성격	미착용	114	2.83	0.62	9.55***
		착용	114	2.24	0.68	
	성취	미착용	114	2.72	0.64	6.01***
		착용	114	2.32	0.74	
	총점	미착용	114	2.69	0.61	8.81***
		착용	114	2.21	0.67	

*** $p < .001$

인공와우 기기를 착용한 여성과 인공와우 기기를 착용한 남성에 대한 대학생들의 평가가 외모, 성격, 성취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시행한 결과는 <표 III-6>과 같다.

<표 III-6 > 인공와우 기기를 착용한 여성과 남성에 대한 비교 결과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외모	여성	114	2.59	0.78	6.99***
	남성	114	2.08	0.83	
성격	여성	114	2.44	0.72	3.16**
	남성	114	2.24	0.68	
성취	여성	114	2.65	0.73	5.23***
	남성	114	2.32	0.75	
총점	여성	114	2.56	0.67	6.18***
	남성	114	2.21	0.67	

** $p < .01$, *** $p < .001$

<표 III-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모, 성격, 성취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보다 남성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t 검증 결과 외모($t = 6.99, p < .001$), 성격($t = 3.16, p < .01$), 성취($t = 5.23, p < .001$) 영역에서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보청기와 인공와우 기기에 대한 태도 비교 결과

보청기와 인공와우 기기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를 설문지로 평가하여 문항별로 ‘예’라고 답한 대상자 수를 퍼센트로 제시한 결과는 <표 III-7>과 같다.

<표 III-7 > 보청기와 인공와우 기기에 대한 평가 비교 결과

영역	문항	보청기 (%)	인공와우 (%)
사회적 낙인	걱정스러움	63.2	76.3
	눈에 띄지 않음	50.0	12.3
	타인이 착용시 식별함	18.4	54.4
	당황스러움	46.5	61.4
지식	적응에 문제없음	31.6	14.9
	도움이 되지 않음	7.9	14.0
	젊은 사람은 청각장애가 안됨	3.5	6.1
	청각장애문제 해결	6.1	13.2
개인적 견해	노인만 보청기 착용	7.0	9.6
	청각장애에 대한 배려	83.3	78.1
	노화의 일부이므로 보청기 수용	69.3	50.9
	무능력, 어리석음	4.4	13.2

<표 III-7>에서 보는바와 같이 보청기와 인공와우 기기 모두 사회적 낙인 영역에서 기기 착용시 타인에게 드러나고, 그것으로 인해 걱정하거나 당황스러워 할 것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았다. 지식 영역에서는 보청기와 인공와우 기기 모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보청기나 인공와우 기기 착용이 도움이 되지만 청각장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않으며, 젊은 사람도 청각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개인적 견해 영역에서는 노인만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아니며, 노화의 일부로 수용해야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보청기나 인공와우 기기 착용자가 무능력하지 않으며, 청각장애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보청기와 인공와우 기기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 설문지 결과를 하위 영역별로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긍정적인 내용으로 답한 경우 1점, 부정적인 내용으로 답한 경우 0점으로 처리하였다. 즉, 문항 3, 4, 5, 11은 ‘예’를 1점으로 처리하였고, 문항 1, 2, 6, 7, 8, 9, 10, 12번은 ‘아니오’를 1점으로 처리하였다. 보청기와 인공와우 기기에 대한 평가가 사회적 낙인, 지식, 개인적 견해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시행한 결과는 <표 III-8>과 같다.

<표 III-8 > 보청기와 인공와우 기기에 대한 태도 비교 결과

하위 영역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사회적 낙인	보청기	114	2.22	1.03	8.61***
	인공와우	114	1.20	1.15	
지식	보청기	114	3.14	0.66	4.31***
	인공와우	114	2.82	0.89	
개인적 견해	보청기	114	3.41	0.77	4.25***
	인공와우	114	3.06	0.93	
총점	보청기	114	8.77	1.89	8.49***
	인공와우	114	7.08	2.12	

*** $p < .001$

<표 III-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청기와 인공와우 기기에 대한 점수 모두 개인적 견해, 지식, 사회적 낙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청기와 인공와우 기기를 비교했을 때, 사회적 낙인, 지식, 개인적 견해 모든 영역에서 보청기보다 인공와우 기기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낙인 영역에서 인공와우 기기에 대한 태도가 보청기에 대한 태도보다 훨씬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 검증 결과 보청기를 착용한 조건과 인공와우 기기를 착용한 조건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사회적 낙인($t = 8.61$, $p < .001$), 지식($t = 4.31$, $p < .001$), 개인적 견해($t = 4.25$, $p < .001$) 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보청기와 인공와우 기기에 대한 태도에 관련된 변인 분석 결과

보청기와 인공와우 기기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에 관련된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가자의 성별, 학년, 청각장애 경험,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착용 유무, 특수교육 관련 과목 수강 경험과 태도 설문지의 세 하위 영역 평균 점수에 대해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III-9>와 같다.

<표 III-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 학년, 청각장애에 대한 경험,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착용 유무, 특수교육 관련 과목 수강 경험 중 성별($r = -0.19$, $p < .05$)과 안경 및 콘택트렌즈 착용($r = -0.31$, $p < .01$)만이 인공와우 기기를 착용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약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보다는 남성이 인공와우 기기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덜 가지고,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사람이 인공와우 기기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덜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 > 보청기와 인공와우 기기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변인의 상관분석 결과

영역	착용 기기	성별	학년	청각장애 경험	안경 착용	특수교육 과목 수강
사회적 낙인	보청기	-0.10	0.11	0.00	-0.07	0.07
	인공와우	-0.19 *	-0.12	-0.06	-0.31**	-0.02
지식	보청기	-0.04	0.01	-0.18	0.13	-0.04
	인공와우	0.04	-0.17	-0.09	-0.12	0.02
개인적 견해	보청기	0.13	-0.07	0.04	0.03	0.08
	인공와우	0.23	0.04	-0.01	0.18	0.10
총점	보청기	-0.03	0.05	-0.45	0.01	0.07
	인공와우	-0.87	-0.12	-0.08	-0.15	0.04

* $p < .05$, ** $p < .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보청기와 인공와우 기기 착용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젊은 성인 여성과 남성이 귀걸이형 보청기와 귀걸이형 인공와우 기기를 착용한 모습을 90도 각도로 촬영하여 제시하였다. 촬영 각도를 90도로 한 이유는 귀걸이형 보청기의 경우 귀꽂이(ear mold)와 본체가 동시에 가장 잘 드러나며, 귀걸이형 인공와우 기기의 경우 전송 코일과 어음처리기가 동시에 가장 잘 드러나는 각도가 90도이기 때문이다. Johnson 등(2005)의 연구에서도 45도, 90도, 135도 각도에서 다양한 보청기 유형을 촬영하여 대학생들에게 제시한 결과 귀걸이형 보청기의 경우 90도 각도에서 가장 시각적으로 두드러진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인 ‘보청기 효과’와 ‘인공와우 효과’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기가 가장 잘 드러나는 90도 각도에서 촬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여러 기기 유형 중에서 보청기와 인공와우 기기를 귀걸이형으로 선택한 이유는 인공와우 기기의 경우 어린 아동들이 기기의 관리 문제와 언어습득 시기 등을 고려해 박스형 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에 비해 다수의 성인이나 학령기 아동들은 사용의 편리함과 미용상의 이유로 귀걸이형을 선호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기기 착용자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귀걸이형으로 선정하였다. 보청기를 귀걸이형으로 선택한 것은 귀걸이형 인공와우 기기와 가장 외형적으로 유사하여 두 기기에 대한 비교가 용이하며, 보청기가 점점 소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고도 이상의 난청 환자들은 귀걸이형 보청기 착용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기기 착용자를 젊은 성인으로 선택한 것은 인공와우이식이 시행된 초기 어린 나이에 인공와우이식을 받은 환자들의 경우 현재 대학 진학이나 취업 준비를 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인공

와우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젊은 성인으로 선정하였다. 여성과 남성 착용자의 사진을 각각 촬영한 것은 '보청기 효과'가 사회심리적 특성이므로 성별에 따른 평가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보청기 착용 유무에 대한 대학생들의 평가를 비교하고, 인공와우 기기 착용 유무에 대한 대학생들의 평가를 비교한 결과 보청기와 인공와우 기기 모두 착용하지 않은 조건보다 착용한 조건에 대한 평가가 더 부정적이었다. 선행연구들은 일반인들이 장애에 대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특성에 기초해서 외모, 능력,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Cox, Cooper, & McDade, 1989; Dengerink & Porter, 1984; Kasten & Henry, 1986). 본 연구 결과에서도 대학생들은 동일 인물에 대해 보청기나 인공와우 기기를 착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외모, 성격, 성취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났던 '보청기 효과'가 한국의 대학생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에 대해 Blood 등(1997)은 난청이 있는 사람에게 보청기 착용의 필요성과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청기는 아직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처럼 사회적 수용도가 높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보청기나 인공와우 기기 착용자와의 초기 상호작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유사하며, 오히려 지속적인 인식이나 태도는 기기의 이득에 대한 정보, 의사소통능력, 기기 착용자의 자아정체성과 같은 더 중요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Johnson et al., 2005). 태도 설문지 조사 결과에서도 다수의 대학생들은 보청기나 인공와우 기기 착용이 도움이 되며, 기기의 착용이 무능력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청각장애에 대한 배려를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대학생들의 태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Cienkowski 와 Pimentel(2001) 또한 태도는 설득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새로운 정보에 의해 수정 가능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교육이나 캠페인을 통해 보청기와 인공와우 기기 착용의 이득과 한계점, 청각장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인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청기와 인공와우 기기 착용 유무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보청기를 착용한 대상과 평가자에 따라서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들은 어린 아동, 학령기 아동, 여성 노인 등 여러 대상군에서 보청기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Danhauer et al., 1980; Dengerink & Porter, 1984; Johnson & Danhauder, 1982; Johnson, Danhauser, & Edwards, 1982; Mulac, Danhauser, & Johnson, 1983). 그러나, Iler 등(1982)의 연구에서 보청기 착용 대상과 평가자를 노인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보청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Iler 등(1982)은 보청기를 착용한 대상과 평가자의 연령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노인들의 보청기 착용은 사회적으로 좀 더 수용적이기 때문에 보청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교사가 보청기를 착용한 청소년에 대해 평가한 Brimacombe 등(1983)의 연구와 카톨릭 교구 부속학교 학생이 보청기를 착용한 또래에 대해 평가한 Silverman와 Largin(1993)의

연구에서도 보청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가자와 보청기 착용자의 연령 외에 사회문화적 경험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Davis et al., 1999).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또한 성인 초기 평가자의 동일 연령대 보청기 및 인공와우 기기 착용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로 제한해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청기와 인공와우 기기 착용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형용사형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여성 착용자의 경우 외모에서 착용 유무에 따른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 착용자의 경우 외모보다는 성격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은 보청기 착용이 외모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Cienkowski & Pimentel, 2001). 이는 젊은이들이 외모에 관심이 높은 시기에 있으며, 특히 여성에 대한 평가시 남성보다 미용적 측면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Sprinthall & Collins, 1995). 미용적 측면에 대한 평가는 기기 착용자의 연령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Danhauer 등(1980)은 어린 남아의 경우 외모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았지만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성인이나 청소년기에 인공와우이식을 받는 환자들이 기기를 선택할 때 귀걸이형을 선호하는 것도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인이나 청소년기 환자의 수술 후 지속적인 기기 착용과 적응을 위해서 수술 전 상담시 미용적인 부분 또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청기 착용 유무와 인공와우 기기 착용 유무에 대한 대학생들의 평가를 성별로 비교한 결과, 두 기기 모두에서 여성 착용자보다 남성 착용자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모와 성취에서 성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보청기와 인공와우 기기가 가장 잘 드러나는 머리 모양으로 기기를 착용한 사진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남성이 외모에서 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보청기나 인공와우 기기를 착용하는 여성들은 일상생활에서 기기가 잘 드러나지 않는 머리 모양을 하고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서 기기 착용자의 외모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 성취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이 여성에 비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성에 대한 평가가 더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보청기와 인공와우 기기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를 비교한 결과 보청기보다 인공와우 기기에 대한 태도가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했듯이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었던 보청기 착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는 본 연구에서 이미 확인되었으며, 인공와우 기기 착용에 대한 평가는 보청기에 대한 평가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저자들은 ‘인공와우 효과’라고 하였다. Danhauer 등(1980)은 청각 관련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관찰자의 경우 보청기의 크기를 근거로 보청기 착용자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보청기의 크기가 더 클수록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

한 평가가 더욱 부정적이었다. 본 연구에서도 태도 설문지의 세 하위 영역 중에서 기기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한 '사회적 낙인' 영역에서 인공와우 기기에 대한 평가가 보청기에 비해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공와우 기기를 외형적으로 적게 드러나는 귀걸이형으로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와우 기기가 보청기보다 크기가 더 크며, 전송 코일 때문에 기기가 더 외형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기가 가장 잘 드러나는 머리 모양으로 기기를 착용하여 90도 각도로 촬영한 고정된 모습이므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실생활에서 환자들은 기기가 잘 드러나지 않는 머리 모양과 복장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환경과 본 연구 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Johnson et al., 2005).

보청기와 인공와우 기기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에 관련될 것으로 생각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과 안경 및 콘택트렌즈 착용 유무가 인공와우 기기 착용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리고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이 인공와우 기기 착용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적게 나타내었다. Cienkowski와 Pimentel(2001)의 연구에서도 관련 변인과 설문 문항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보청기 착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변인들 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와우 기기 착용자에 대해 남성이 사회적 낙인을 적게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낮은 사회적 거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김미옥, 2002). 또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인공와우 기기 착용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낮게 나타난 것은 인공와우 기기가 보청기보다 외형적으로 훨씬 드러나기 때문에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착용 경험이 간접 경험으로 작용하여 낙인 효과가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그 외 변인들 중 본인의 청각장애 유무는 피험자 중 청각장애인이 1명에 불과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었고, 청각장애에 대한 경험 유무와 특수교육 관련 수강 여부 또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그 수가 매우 적어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청각장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사회봉사 경험, 종교 유무, 사회경제적 지위 등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를 보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은 동일한 인물이 보청기나 인공와우 기기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착용했을 때 외모, 성격, 성취에 대해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는 한국의 대학생에서도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보청기 효과'가 나타나며, 인공와우 기기에 대해서도 '인공와우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청기나 인공와우 기기 착용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청각장애와 기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캠페인 및 교육이 요구된다.

둘째, 대학생들은 보청기와 인공와우 기기 모두 여성 보다는 남성에 대해 외모, 성격, 성취에서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셋째, 보청기와 인공와우 기기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를 비교한 결과, 보청기보다는 인공와우 기기에 대한 태도가 사회적 낙인, 개인적 견해, 기기에 대한 지식에서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회적 낙인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인공와우이식을 받는 환자들의 수술 전 상담시 미용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와 기기 착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평가에 관한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

넷째, 보청기와 인공와우 기기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변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과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착용 유무가 인공와우 기기 착용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김동연. (1984). 한국인의 부정적 장애인 의식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 연구** 제 7집.
- 김미옥 (200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4, 99-126.
- 이종남 (1994).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관한 연구-사회복지기관의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 Allen, M., & Bellstedt, J. (1996). *Attitudes toward blindness and blind people: what do we believe?*. *The ABNF journal*, 7, 72-7.
- Benson, V., & Marano, M. A. (1998). Current estimates from the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Vital and Health Statistics*, 10, 1-428.
- Blood, G. W., Blood, I., & Danhauer, J. L. (1977). The hearing aid effect. *Hearing Instruments*, 28(6), 12
- Blood, I. M. (1997). The hearing aid effect : challenges for counseling. *Hearing and Counseling*, 59-62.
- Brimacombe, J. A., Danhauer, J. L., & Mulac, A. (1983). Teachers' perceptions of students who wear hearing aids : an empirical test.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14, 128-35.
- Brockington, I. F., Hall, P., Levings, J., & Murphy, C. (1993). The community's tolerance of the mentally ill.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2, 93-9.
- Cienkowski, K. M. & Pimentel, V. (2001). The hearing aid 'effect' revisited in young adults. *British Journal of Audiology*, 35, 289-95.
- Cox, L. R., Cooper, W. A., & McDade, H. L. (1989). Teachers' perceptions of adolescent girls who wear hearing aids.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20, 372-80.
- Danhauer, J. L., Blood, G. W., Blood, I., & Gomez, N. (1980). Professional and lay observers' impressions of pre-schoolers wearing hearing aid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45, 415-22.
- Davis, M., Jackson, R., Smith, T., & Cooper, W. (1999). The hearing aid effect in African American and Caucasian males as perceived by female judges of the same race.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 30, 165-72.

- Dengerink, J. E., & Porter, J. B. (1984). Children's attitudes towards peers wearing hearing aids.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 47, 205-9.
- Iler, K. L., Danhauer, J. L., & Mulac, A. (1982). Peer perceptions of geriatrics wearing hearing aid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47, 433-8.
- Johnson, C. E., & Danhauer, J. L. (1982). Attitudes towards severely hearing-impaired geriatrics with and without hearing aids. *Australian Journal of Audiology*, 4, 41-5.
- Johnson, C. E., Danhauer, J. L., & Edwards, R. G. (1982). The "hearing aid effect" on geriatrics -Fact or fiction?. *Hearing Instruments*, 33(10), 21, 24-36.
- Johnson, C. E., Danhauer, J. L., Gavin, R. B., Reith, A. C., & Lopez, I. P. (2005). The "hearing aid effect" 2005" a rigorous test of the visibility of new hearing aid styles. *American Journal of Audiology*, 14, 169-75.
- Kasten, R. N. (1992). Considerations for the use and orientation to hearing aids for older adults. In R. H. Hull (ed.), *Aural rehabilitation (2nd Ed.)*. San Diego, CA : Singular Publishing Group.
- Kasten, R. N., & Henry, D. F. (1986). Peer reactions to school-age hearing aid wearers. *The Hearing Journal*, 39(9), 18-23.
- Kim HN, Kim SG, Lee HK, Oh H, Moon SK, Choi J, Lee EH, Park K, Park DJ, Lee JH, & Yi SW. (2000). Incidence of presbycusis of Korean populations in Seoul, kyunggi and Kangwon provinces. *J Korean Med Sci*, 15(5), 580-4.
- Lee, T., & Rodda, M. (1994). Modification of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Canadian Journal of Rehabilitation*, 7, 229-38.
- Marini, I. (1994). Attitudes toward disability and the psychosocial implications for persons with SCI. *SCI Psychosocial Process*, 7, 147-52.
- Mulac, A., Danhauer, J. L., & Johnson, C. E. (1983). Young adults' and peers' attitudes towards elderly hearing aid wearers. *Australian Journal of Audiology*, 5, 57-62.
- Silverman, F., & Largin, K. (1993). Do children's reactions to peers who wear visible hearing aids always tend to be negative?.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6, 205-7.
- Sprinthall, N. A., & Collins, W. A. (1995).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 : McGraw-Hill.

Perception and attitude of university students for hearing aid and cochlear implant : hearing aid effect and cochlear implant effect

Heo, Min Jung

Pusan National University

Ahn, Seong Woo

Pusan National University

Kim, Lee Suk

Dong-A University

Boo, Sung Hyun

Sungkyunkwa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university students about hearing aid and cochlear implant, and to examine the variables related to their attitudes towards hearing aid and cochlear implant. The subjects were 114 university students, who were asked to see the pictures on wearing conditions and non-wearing conditions of hearing aid and cochlear implant and complete the adjective format scale. Also, they saw the pictures of hearing aid wearer and cochlear implant wearer, and completed the questionnaires about attitude for hearing aid and cochlear implant. Results show that university students show more negative perception about wearing conditions than non-wearing conditions on appearance, personality, and achievement for both hearing aid and cochlear implant. Attitude for cochlear implant was more negative than that for hearing aid on social stigma, viewpoint, and knowledge. As a result of analyzing related factors for attitude about hearing aid and cochlear implant, sex and wearing glasses or contact lenses were related to the social stigma for cochlear implant users. These results show that there exist 'hearing aid effect' and 'cochlear implant effect' in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their attitudes are more negative for cochlear implant than for hearing aid.

Key words : Hearing aid, Cochlear implant, Hearing aid effect

논문 접수: 2008. 8. 3 심사 시작: 2008. 8. 11 게재 확정: 2008. 9. 26

<부록 1> 보청기와 인공와우 기기 착용 유무에 대한 평가 척도

사진을 보고, 적절한 곳에 V표를 하십시오.

- | | | |
|-----------|--|---------|
| 1. 인상이 좋은 |  | 인상이 나쁜 |
| 2. 단정한 |  | 지저분한 |
| 3. 호감이 가는 |  | 호감이 안가는 |
| 4. 예쁜 |  | 못생긴 |
| 5. 진취적인 |  | 비진취적인 |
| 6. 외향적 |  | 내성적 |
| 7. 지적인 |  | 무식한 |
| 8. 성공적인 |  | 실패한 |
| 9. 친절한 |  | 불친절한 |
| 10. 영리한 |  | 우둔한 |
| 11. 능력있는 |  | 무능력한 |
| 12. 적극적인 |  | 수동적인 |

<부록 2> 보청기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질문지

학 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성 별	(남 / 여)			
생년월일				
나는 청각장애 이거나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다.				예/아니오
가족, 친척 혹은 가까운 사람 중에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이 있다.				예/아니오
나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있다.				예/아니오
나는 특수교육 혹은 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다.				예/아니오

본인의 생각이나 감정과 가장 유사한 항목에 V표를 하십시오.

번호	질 문	대답
1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보청기가 보일까봐 걱정할 것 같다.	예 / 아니오
2	보청기는 노인들만 착용하는 것이다.	예 / 아니오
3	요즘은 보청기를 착용하더라도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예 / 아니오
4	나는 보청기에 적응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예 / 아니오
5	만약 어떤 사람이 보청기를 끼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이 청각장애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과 대화할 때 신중하게 배려할 것이다.	예 / 아니오
6	보청기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안된다.	예 / 아니오
7	다른 사람이 보청기를 끼고 있으면 항상 보청기가 내 눈에 띈다.	예 / 아니오
8	젊은 사람은 결코 청각장애가 되지 않는다.	예 / 아니오
9	보청기를 끼면 청각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완전히 해결될 것이다.	예 / 아니오
10	내가 보청기를 낀 것이 보인다고 생각하면 당황스러울 것이다.	예 / 아니오
11	청각장애는 노화의 일부이기 때문에 보청기 끼는 것을 꺼려하지 않아야 한다.	예 / 아니오
12	나는 보청기가 무능력, 어리석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예 / 아니오